

김영서가 보낸 13통의 편지

머리말

김영서는 우리 학년을 수석으로 졸업 하고 서울공대 전기과에 한학기를 다니다가 미국 학기가 시작 되는 9월에 맞춰 1954년 8월 31일 미국으로 떠났다. 금년이 출국후 만 50년이 되는데 연구에 몰두 하느라 아직껏 모국 땅을 밟지 않고 있다. 나와는 3학년 2학기 때 한 반이었다. 그는 부산에서 환도 하고 나는 서울에서 공부 하였었는데 서울공대를 함께 진학 하면서 우정이 깊어졌다. 지금 내 수중에는 유학 직후부터 3년동안 내게 보낸 13통의 편지가 있다.

몇번 이사를 다니면서도 귀하게 간직해 왔다. 그가 큰상(노벨상)을 받으면 이 편지가 얼마나 귀한 물건이 될가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반세기 전 동란 후 처음 미국에 간 한 학생의 눈에 비친 미국 문물을 알아 보기 위하여 편지 별로 몇 대목만 소개코자 한다. 통신과 교통이 불편하던 그러나 청운의 꿈을 품었던 우리의 젊은 시대로 되돌아가 보자.



(1) 1954.9.4

1954.8.31 서울을 떠나 Carnegie Institute of Technology 로 유학 왔는데 규모는 서울 공대의 2배쯤 된다. 여기서는 2학년이 되어서 미분 방정식을 배

운다. 그런 면에서 우리 수준이 낮지는 않다.

오다가 동경에 들었는데 일본도 별 것 없는 것 같아. 한국인들이 도리어 씩씩하고 튼튼해. 키 작은 사람들이 기운이 하나도 없이 동경 시내를 다니고 있는데 고급 상품은 돈이 없어서 사지를 못하는 것을 보니 불경기인 것 같더라.

(2) 1955.1.29

1학기말 시험을 쳤는데 수학은 따로 공부 안해도 만족할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화학은 최신 이론이 많이 삽입 되어 노력이 필요했다. 인문과목으로는 2학기에는 산업혁명, 공산주의, 세계대전 등 세 가지 주제를 토론 하면서 배워야겠다. 미국은 회사 단위로 연구가 추진 되는데 자기만의 독특한 제품개발에 혈안이 되고 있다. 미국 번영의 key 였던 technologie를 우리도 좀 가지고 잘 살아 봐야 할 것 아닌가.

(3) 1955.2.24

우리 대학에 경제수학과가 신설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장학금을 준다고 한다. 교장(김원규)이 여기 왔을 때 매년 서울고 출신을 1명씩 받아 주기로 하였기에 내가 application 서류를 받아서 보냈다. 관심 있으면 교장 귀국 하는 대로 접촉해 보라.

(4) 1955.3.15

미국 와서 공부 하는 것은 조금도 염려할 것 없고 책을 많이 읽어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학술 용어도 많이 외워두고... 음식에 대한 걱정은 더욱 필요 없다. 배고프면 막 들어가고 영양분은 많으니 살이 찌거야. 미국 오기 전에 고국에 sweet heart 하나 남겨 놓고 오면 좋지. 내가 그것 못한 것 후회 하나까.

(5) 1955.3.30

나는 영화 보는 대신 매달 책을 한 권씩 떼기로 했다. 지난 달에는 Physical chem. 중 4차원 기체운동을 빼고는 거의 훑었고 이번 달에는 Freshman

mechanics를 읽을 예정이다. 미국 사람은 수입의 30%를 세금으로 내는 것 같고, 노동자는 하루 8시간 일 하는데 시간 당 1-2\$이란다(한국의 약 7배). 미국 기업가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싼 외국에 기업체를 설립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애.

(6) 1955.4.15

어제 김성직이가 김철모와 함께 Kentucky로부터 놀러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교장이 왔을 때도 수업을 안 빼먹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체조시간을 빠졌지. 미국이 한국에 큰 공장을 많이 세울 것 같다. 소유와 경영은 그들이 담당하겠지만 한국 근로자들의 취업 기회는 많이 늘어 날 것이야. 국민소득이 국가의 부를 결정 하는만큼 외자가 도입 되면 국력이 커질 것이다.

(7) 1956.6.6

지난 학기 말에 23학점 전체 과목에 모두 A가 나왔다. 미국 애들, 세계 이곳 저곳에서 모인 수재라는 애들을 물리치고 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그러나 이런 말은 옆에 있는 한국 동료에게는 하기 거북하다. 서로 질투가 심해서...

(8) 1956.6.20

요사이는 불어 하느라 고생이 많다. 불어에는 불규칙이 왜 그리 많은지. 중학교 때는 영어 한다고 고생하고 여기 와서 2년은 독어 한다고 시간 쓰고, 지금은 불어, 다음에는 러시아어를 해야 된다니 약소 국가 출신은 전공하기 보다 말 배우는 게 더 힘들구나.

(9) 1956.7.23

미국 사람들은 “남에게 참견하고 남을 걱정 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애. 미국인의 조상들 대부분이 종교개혁 이후 생긴 청교도들로서 합리주의를 사랑하는 gentleman들이라서 그런가 봐.

(10) 1956.9.1

미국 학생과 우리 나라 학생과의 차이는 여자 관계에서 볼수 있어. 대학 캠퍼스에는 여학생들이 많은데 대하는 태도가 무척 순진하고 friendly 하면서도 humor적이라 할수 있지. 가끔 우리 도덕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기도 하나 내가 젊다는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점도 없지 아니하다.

(11) 1956.10.27

3학년이 되어 물리학과에서 공부 하는데 내가 고3 때 하던 것 보다 2배는 더 공부해야 된다. 고3 때 나도 할만큼은 했다고 생각 하는데...나쁜 아니라 우리과의 모든 학생이 그렇게 한단다. 지난 방학에 Capitalist Production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영국인이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영국 자본주의를 발전 시키느라 고생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여기 비하면 17C, 18C의 우리 조상들은 게으르고 감투 싸움에만 골몰 하였던 것이 부끄럽다.

맺는 말

요사이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여 안방에서 다이알만 돌리면 미국과 직접통화가 되고 인터넷으로 소식을 전할 수 있다. 50년전에는 편지가 유일한 통신 수단인데 왕복 하려면 20일은 걸려야 했다. 그러나 전화가 아닌 서신으로 소식을 주고 받았기에 지금 그 편지가 남아 이렇게 옛 일을 회상하고 있으니 문명의 발달에도 아이로닉한 점이 있나보다.

편지 주소란에 “서울시외(또는 경기도) 서울공대 섬유과” 라고만 썼어도 배달이 되었으니 신기하다. 지금 같으면 市郡區洞 번지 없는 편지가 배달 될 수 있거나 하겠는가. 비록 교통과 통신은 그때만 못 하더라도 그때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낭만도 있었던 것 같다.